

曾國藩과 桐城 古文 그리고 考證學

백 광 준*

<目次>

- | | |
|----------------|--------------------|
| I. 서론 | IV. '雄奇之文'을 쓰기 위하여 |
| II. 曾國藩과 학술 환경 | V. 曾國藩의 지향과 桐城派 |
| III. 會通의 학술 지향 | |

I. 서론

曾國藩은 桐城派를 중흥시킨 인물로 거론된다. 이러한 평가는 姚鼐가 앞서 동성 문파를 하나의 학파로 자리 매김 시키기는 했으나, 전국적인 영향력을 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였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변은 당시 청조의 지지를 받는 重臣의 신분이었으므로, 그가 동성파를 받아들인 순간, 동성파는 그야말로 날개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었다. 문장과 문장이론이 뛰어나다 한들, 그 문파를 끌어가는 주요 인물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가세되었을 때에야 해당 학파가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서 요내에서 중국변으로의 桐城 文統의 이행 과정을 주목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개로서 梅曾亮의 존재를 주목한 바 있다.¹⁾ 그 글에서는 중국변이 요내를 역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존할 만큼 요내의

*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조교수

1) 줄고, <桐城派에서 湘鄉派로 - 曾國藩의 지향에 대한 고찰>, 《中國文學》 제 61집, 2009.11.

문장과 문학이론을 높이 평가하고, 나아가 동성파의 문통을 자신이 잇고자 하는 뚜렷한 지향을 내보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증국번이 동성파를 받아들인 이유를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그 해답으로, 요내의 글과 동성의 문학이론에 대한 경모라는 ‘모범 답안’과 더불어, 湖南 출신이었던 증국번이 강남 학계의 진출 및 강남 사인들을 규합하기 위한 욕망 속에서 자신의 지향을 기획하였을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증국번의 뜻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당시 고증학이 건가연간의 전성기를 지나 세력이 약화되고는 있었으나, 여전히 일정한 영향력을 구가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증국번이 고증학을 마다하고 굳이 동성파를 선택한 것은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할 수 있다. 앞선 글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지역 지식인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난점은 결국 그의 의도를 읽기 위해서는 당시 학술 배치 속에서 그의 의도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일깨운다. 다시 말해서, 고증학의 시대였던 당시 증국번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성파 이론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고증학에 대한 그의 시선 역시도 읽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의 사고 곳곳에 들어있는 고증학의 영향들을 밝히고, 이를 통해 그의 이론이 가진 모습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그의 많은 이론들이 고증학과 관련성 속에서 빚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II. 曾國藩과 학술 환경

1. 湖南의 학술 전통

증국번이 동성파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호남이라는 지

역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남 지역은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성리학 기풍이 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동성파와의 접점이 찾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대 성리학은 陸隴其, 張伯行 등 이후에 거의 자취를 감췄으나, 호남 지역에서만큼은 송대부터 뿌리내린 성리학의 전통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 오고 있었다. 예컨대 호남의 대표적 서원인 岳麓書院에서는 건가연간 고증학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성리학 교육을 고수하였다.²⁾ 이는 상대적으로 호남지역에서 고증학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였을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중국번 당시 편찬된, 호남의 글을 수록한 《湖南文徵》을 살펴보면, 그 안에 실린 고증의 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는 고증학의 경우, 호남 지역의 “옛 현인들이 창도한 것도 일정치 않고, 후세들의 흠모 역시 적었기” 때문이었다.³⁾ 호남에 고증학의 전통이 뿌리내리지 않았고, 또한 후학들도 고증학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건가연간에 장기간 악록서원을 이끌었던 羅典의 말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道學을 제창하고, 朱熹·張載의 전통을 잇자, 호남 일대에서는 온통 떠받들었다. 공자의 실마리를 듣게 된 일시의 뛰어난 선비들은 모두 도에 뜻을 두고 體用之學에 매진하였다.⁴⁾

대대로 義理之學을 고수했던 호남 학풍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호남 지역에서 이렇듯 성리학에 힘쓰는 까닭은 무엇일까? 중국번 그 자신의 대답을 들어보기로 하자.

2) 劉玉才 著, 《晚清書院與學術變遷研究》, 160쪽 참고.

3) 曾國藩, <湖南文徵序>: “惟考據之文搜集極少. 前哲之倡導不定, 後世之欣慕亦寡.”(《曾國藩詩文集》, 412쪽)

4) 嚴如煜, <文會記>: “倡明道術, 衍朱張之傳, 湖湘間翕然宗之. 一時俊偉奇傑之士, 獲聞夫子之緒餘者, 皆服右志道, 爲有體有用之學.”(《晚清書院與學術變遷研究》, 160쪽에서 재인용)

호남이라는 지역은 북쪽으로 長江과 닿아있고 남쪽으로는 다섯 준령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貴州와 四川 지역과 인접하여 여러 苗族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대체로 궁벽한 땅이다. 하지만 周나라 말기에 屈原이 이 지역에서 태어나, <離騷> 등의 글은 후세의 정운을 읊는 이들에게 원조로 여겨진다. 후대에 이르러, 다시 周敦頤가 이곳에서 태어났다. <太極圖說>·<通書>를 지어, 후세에 의리를 논하는 이들에게 원조로 여겨진다. 두 현인은 모두 이전 사승 관계가 없지만, 뛰어난 글을 창조하였다. 위로는 <詩經>·<周易>에 필적하여, 아래로 백대의 준재라 해도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하물며 그 유풍의 영향을 받은 호남의 후손들임에라!⁵⁾

중국변은 ‘義理’와 ‘情韻’, 두 갈래의 문풍으로 정리하면서, 주돈이를 ‘의리’의 비조로, 굴원을 ‘정운’의 비조로 내세우고 있다. 알다시피, 굴원은 楚辭라는 장르를 열었고, 주돈이의 학문은 이후 정호, 정이, 장재, 주희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洛閩學派의 선하를 이루었다. 아마도 중국변은 이를 염두에 두고 동시에 그들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둘을 대표적으로 내세우면서, 두 갈래 글의 뿌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글이 호남 출신의 羅研生이 선편한 <湖南文徵>의 서문으로 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호남의 학술 전통에 근거하여 호남의 글쓰기 원류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물며 그 유풍의 영향을 받은 호남의 후손들임에라!”라는 말에는, 굴원과 주돈이의 학문이 호남 학풍의 주된 골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책에 수록된 글 중에서 의리에 뛰어난 글이 6할이고 정운을 묘사하는 데 능한 글이 4할이다.”⁶⁾는 점을 강조하며, 나연생의 이 선집 역시

5) 曾國藩, <湖南文徵序>: “湖南之爲邦, 北枕大江, 南薄五嶺, 西接黔蜀, 群苗所革, 蓋亦山國荒僻之亞. 然周之末, 屈原出於其間, <離騷>諸篇爲後世言情韻者所祖, 逮乎來世, 周子復生於斯, 作<太極圖說>·<通書>, 爲後世言義理者所祖. 兩賢者, 皆前無師承, 創立高文. 上與<詩經>·<周易>同風, 下而百代逸才舉莫能越其範圍. 而況湖湘後進, 沾被流風者乎?”(<曾國藩詩文集>, 412쪽)

6) 曾國藩, <湖南文徵序>: “茲編所錄, 精於理者蓋十之六, 善言情者, 約十之四.”(<曾國藩詩文集>, 412쪽)

호남 학술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따라서 호남의 이러한 전통은 동성파의 지향이 고문과 성리학의 결합에 있다는 사실과 절묘하게 겹쳐진다. 물론 이러한 지역 정서 및 호남 학술 전통이 중국번이 동성파의 글에 귀의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고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호감을 갖는 데 일정한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⁷⁾

이와 함께, 위에서 우리는, 중국번이 호남 지역에서 굴원이라는 위대한 시인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굴원이 사부체 글쓰기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가 동성파와 다른 자신의 문학이론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漢賦를 매우 주목하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⁸⁾ 곧 그가 동성의 고문을 받아들이면서도 한부를 주목하는,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 가능했던 데에도 호남 지역에서 굴원을 비롯한 많은 사부 작가들이 배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한 친숙함이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닐까?⁹⁾

중국번이 글쓰기에서 지향했던 풍격 또한 지역적 정서와의 관련성 속에서 다뤄지기도 한다. 그가 지향했던 글쓰기 풍격은 ‘雄奇之文’이었다.

나는 옛사람의 雄奇之文(곧 웅장하고 기이한 글)을 좋아하니, 한유를 으

-
- 7)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중국번이 ‘굴원’을 언급한 대목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고증학과 내에서 굴원을 높이 떠받드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곧 凌廷堪 등은 굴원을 고문에 대응하여 변문이라는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한 인물로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劉奕, <清代中期的“文筆說”: 產生, 發展與演變>, 《天津社會科學》, 2006年 第4期, 114쪽) 중국번은 이후 자신의 문학이론을 정초할 때, 변문의 문장표현을 긍정하면서 사부의 수법을 원용하기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데에 굴원의 문장에 대한 친숙한 정서가 새로운 이론의 정초에 긍정적 자극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 8) 줄고, 《晚清傳統文人與文言 - 以後期桐城派爲中心》, 南京大 博士論文, 44쪽.
- 9) 문학사의 발전에 비춰볼 때, 한부가 초사에서 비롯하였고, 또한 한부가 널리 유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양웅, 사마상여 등 초나라 출신 문인들의 활약이 컸다는 점도 더불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뜸으로 꼽고, 양옹을 둘째로 친다.¹⁰⁾

증국번은 분명한 어조로 “나는 옛사람의 웅장하고 기이한 글을 좋아”한 다며 자신의 기호를 밝혔다. 그리고 이 ‘웅장하고 기이한 글’이라는 기준에 따라, 한유와 양옹을 최고의 문인으로 꼽았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한유와 양옹의 글쓰기는 어떤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聖哲畫像記>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西漢 문장 중에 揚雄·司馬相如와 같은 ‘웅장하고 기이한 글(雄奇之文)’은 천지의 웅장하고 힘찬 기세로 陽剛의 美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는 천지의 義의 기세이다. 劉向·匡衡의 심후하고 바른 글은 천지의 온후한 기세로 陰柔의 美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는 천지의 仁의 기세이다. 東漢 이후로 박식하고 고아함은 고대에 비해 손색이 없었지만, 풍골은 다소 무더졌다. 韓愈·柳宗元의 작품은 양옹·사마상여의 웅장하고 기이하며 변화무쌍함을 모두 취하여 작은 편폭에 담아내었으니, 어찌 기이하지 않은가!¹¹⁾

증국번은 요내의 ‘陰柔陽剛’의 이분 분류법을 원용하여, 역대의 글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그 중 양옹·사마상여 그리고 한유·유종원은 陽剛의 글로 분류되고 있다. 증국번은 이전 예문에서 양옹·한유를 높이 평가하였고, 이와 함께, 이 예문에서는 ‘雄奇之文’이 양강의 미에서 비롯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종합하면 양옹·한유에 대한 높은 평가는 양강의 글에 대한 그의 기호에서 비롯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는 다시 증국번이 지향하는 글이 궁극적으로 ‘웅기지문’임을 재확인시켜준다. 이는 앞서 자신이 ‘웅기지문’을 좋아한다고 말한 고백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

10) 曾國藩, <諭紀澤>(咸豐十一年正月初四日): “余好古人雄奇之文, 以昌黎爲第一, 揚子雲次之.”

11) 曾國藩, <聖哲畫像記>: “西漢文章, 如子雲·相如之雄偉, 此天地適勁之氣, 得於陽與剛之美者也. 此天地之義氣也. 劉向·匡衡之淵懿, 此天地溫厚之氣, 得於陰與柔之美者也. 此天地之仁氣也. 東漢以還, 淹雅無慚於古, 而風骨少贖矣. 韓·柳有作, 盡取揚·馬之雄奇萬變, 而內之於薄物小篇之中, 豈不詭哉!”

는 것이다.¹²⁾ 이는 그 자신 호남 문인으로서, 그러니까 상향파로서 그만의 문장이론의 특징을 드러내는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錢基博은 《近百年湖南學風》에서 이러한 중국번의 글쓰기 풍격을 호남의 환경과 연계하여 해석하였다.

湘鄉의 글은 한유를 통해 양용·사마상여를 배우고, 양용·사마상여를 통해 《漢書》를 살피며, 화려한 꽃을 피우며 말에는 강건한 기운이 배기를 지향한다. 동성의 글은 여유롭고 느슨하여 힘을 쓰지 않는 듯하지만, 상향의 경우는 웅장하고 역동적이며 힘이 넘치니 이것이 큰 차이점이다. 고대로 송대 유학자 程子·朱子를 논하는 이들은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으나, 羅澤南이 큰 위용으로 펼쳐내었다. 동성의 方苞·姚鼐의 글을 짓는 이들은 대부분 나약한 폐단이 있지만, 중국번이 神氣로 바로잡았다. 그러므로 호남인이 호남다울 수 있고, 또 다른 세력으로 갑자기 일어나서 풍토에 적합하게 바꿀 수 있었던 까닭은 한 마디로 말해서 ‘힘이 넘치기’ 때문이다.¹³⁾

그는 ‘웅장하고 기이한 글’을 추구하였던 상향의 특징이 상향의 인문지리적 환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만약 우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상향의 문학적 지향뿐만 아니라, 글쓰기의 지향 또한 상향의 지역 전통에서 힘입고 있는 셈이다.

중국번은 동성파를 계승한 인물로 평가되지만,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글쓰기를 확립하고 제창하였다는 점에서 상향파라는 이름으로 불리

12) ‘웅기지문’을 쓰는 데 필요한 요소인 기세의 확보, 양강의 풍격 등은 그가 지속적으로 중시했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줄고 <동성파에서 상향파로> 3.2절 ‘새로운 風格으로’에서 이러한 지향을 갖게 된 이유로 선배 동성문인들의 영향, 특히 매증량과의 관련성을 고찰한 바 있다.

13) 錢基博, <近百年湖南學風>: “湘鄉之文, 由韓愈以摹揚馬, 由揚馬以參《漢書》, 蘄於英華秀發, 語有適響. 桐城優遊緩節, 如不用力, 而湘鄉則雄奇跌宕, 肆力爲之. 其大較也. 自來言宋儒程朱之學者, 無不拘謹. 而羅澤南發之以大勇; 爲桐城方姚之文者, 多失緩懦, 而國藩矯之以神奇. 然則湖南人之所以爲湖南, 而異軍突起以適風土者, 一言以蔽之曰強有力而已.”

기도 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호남의 학술 전통을 감안한다면, ‘상향 파’라는 말이 통상적인 ‘수사’ 차원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중국번은 호남 지역의 학풍을 밀바탕에 깔고서 동성의 문장을 수용 그리고 기획하였던 것이다.

2. 考證學의 수용

건기연간 이후, 경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호남 학풍은 성리학의 부흥을 외쳤고, 이는 고증학의 무용성에 대한 비판을 지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당시 호남 출신 孫鼎臣의 비판은 그것이 표면화된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아예 太平天國의 난이 고증학자들로 인해 터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러한 예에서, 우리는 호남 지역의 학술 분위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손정신의 논의는 사실상 너무 지나친 논의로, 중국번조차도 “근래 고증학의 주장이 진정 폐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태평천국의 난을 초래하였다고 단정 지어 말한다면, 다소 지나치다”¹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런 대목을 볼 때, 중국번 그 자신 역시 호남 지역 학풍에 대한 기본 정서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증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주의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그가 단순히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당시 고증학의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애초 중국번은 당시 여느 호남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증학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西漢代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학자들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었으니, 義理之學·考據之學·詞章之學이 그것이다. 학자들은 제각기 한 가지 길을

14) 曾國藩, <孫芝房侍講芻論序>: “近者漢學之說, 誠非無蔽, 必謂其致粵賊之亂, 則少過矣.”(《曾國藩詩文集》, 301쪽)

옴켜쥐고 서로 비방하였다. 내 사건으로는, 義理之學이 가장 중요하다. 의리가 밝혀지면 공행이 요체를 갖추고 경제에 근본이 생긴다. 詞章之學 역시 의리를 발휘하는 것이다. 考據之學은 난 취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길은 모두 經史를 탐구하는 것으로 각자의 학문 방법을 갖고 있다. 나는 경사를 읽고자하면 응당 의리를 연구해야만 마음이 전일하여 산만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한다.¹⁵⁾

이때가 道光 23년, 곧 1843년으로 수도에 갓 올라왔을 때이다. 당시 그는 성리학에 대한 강한 신념을 견지하고 있었고, 또 그 반대급부로 고증학에 대해 무관심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교우 관계가 그다지 넓지 않았을 것을 감안하면, 이 당시 중국번의 생각은 전적으로 호남 학풍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고증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清史稿》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번은道光 23년, 곧 1843년에 內閣學士, 禮部侍郎으로 자리를 옮기며 兵部를 관장하였다. 그리고 그즈음에 梅曾亮, 邵懿辰, 劉傳瑩 등과 교류하며 詞章, 考據를 연마하였다고 한다.¹⁶⁾ 이 기록에 따르면, 사실상 위에서 자신은 고증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한 시기와 겹쳐져서 중국번의 학술 태도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관련 기록들을 참고하면, 고증에 대한 관심은 좀 더 뒤늦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곧 위의 예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매증량은 동성과 후학이고, 소의진은 경학에 관심을 두었으나 특히 의리 측면에 치중하였다. 세 사람 가운데 유전영만이 고증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유전영과의 교류가 직접적으로 고증학과 접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曾國藩年譜

15) 曾國藩, <致諸弟>(道光二十三年正月十六日): “蓋自西漢以至於今, 識字之儒約有三途, 曰義理之學, 曰考據之學, 曰詞章之學, 各執一途, 互相詆毀, 兄之私意, 以爲義理之學最大. 義理明則躬行有要而經濟有本; 詞章之學, 亦所以發揮義理者也; 考據之學, 吾無取焉矣. 此三途者, 皆從事經史, 各有門徑. 吾以爲欲讀經史, 但當研究義理, 則心一而不紛.”

16) 《清史稿》<曾國藩傳>: “兼友梅曾亮及邵懿辰·劉傳瑩諸人, 爲詞章考據.”(《曾國藩詩文集》, 470쪽)

簡編》에 따르면,道光 26년, 곧 1846년에 “國子監 學政 劉傳瑩과 교유를 맺었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증학으로의 태도 변화는 여러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좀 더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위의 인용문 뒤에 “유전영은 본래 고증학에 경도되었으나, 중국번이 그를 성리학으로 끌었다.”¹⁷⁾는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학술 흐름을 개방적인 태도로 수용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가 애초 가졌던 지역 정서나 학술 풍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술을 가진 인물들과 깊은 교유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게다가 그는 고증학과 마찬가지로 經世之學 역시 새롭게 수용하고 있었다. 일찍이 요내는 당시 학술을 의리, 고거, 사장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중국번은 이에 經濟를 덧붙여, 경제라는 학술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사실 경제에 대해서 중국번은 잘 알지 못하였다.

을미년에 북경에 도착한 뒤, 비로소 시·고문 및 표현법 공부에 뜻을 세웠으나, 좋은 벗이 없어서 아쉬웠다. 근래에 좋은 벗 한 두 명을 얻어, 이른바 ‘경제’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경제는 이른바 궁행실천을 말하는 것으로, 范仲淹·韓琦도 배워서 이를 수 있고, 司馬遷·韓愈도 배워서 이를 수 있으며, 程子·朱子 역시 배워서 이를 수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¹⁸⁾

사실상 의리 외의 학문에 대해서는 진사에 급제한 뒤에 교유를 통해 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그에 따른 학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자신의 학술을 구축해나갔던 중국번의 모습을 잘 보여준

17) 《曾國藩年譜簡編》: “結識國子監學政劉傳瑩, 劉本傾心漢學, 曾國藩則誘之入於理學.”(《曾國藩詩文集》, 566쪽)

18) 曾國藩, <致諸弟>(道光二十三年正月十六日): “及乙未到京後, 始有志學詩古文并作字之法, 亦苦無良友, 近年得一二良友, 知有所謂經濟者, 經濟者, 有所謂躬行實踐者, 始知范韓可學而至也, 馬遷韓愈亦可學而至也, 程朱亦可學而至也.”

다. 이후 도광 원년에는 악록서원에서 《皇朝經世文編》을 출판하기도 하여, 호남 지역에서도 경세치용 학풍이 크게 발전하였다.¹⁹⁾

주의할 점은, 증국번이 단순히 門戶之見을 배제하고 폭넓게 다른 학문을 수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증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비록 고증학에 대한 그의 관심이 뒤늦게 시작한 것이기는 하지만, 고증학에 대한 증국번의 평가는 결코 일반적인 정도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高郵의 王念孫 선생 부자의 경학은 본조의 으뜸”²⁰⁾이라 추켜세웠으며, 함풍 8년 12월 초사홀에 쓴 가훈에서도 阮元의 《十三經校勘記》와 段玉裁의 《撰異》를 높이 평가하면서, 아들에게 “뒤적이면서 대조하여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것이 명확해질 것”²¹⁾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나는 본조 대학자 중에 顧炎武를 제외하면 高郵의 왕씨 학문을 가장 좋아한다.나는 스스로 학문에 성취가 없음을 한스러워하였고, 王安石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부끄러워하며, 너희들이 왕념손, 王引之 선생처럼 되기를 바랐으니, 잠깐 때조차 한시도 잊지를 못하였다.본조의 경전을 탐구하는 이들은 모두 소학에 뛰어나지만, 대체로 단옥재·왕씨 부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따름이다.²²⁾

고증학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왕념손 집안처럼 뛰어난 학자가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도 모자라 “본조에서 고서의 독해에 뛰어난 이로는, 난 高郵 왕씨 부자를 가장 좋아한다고, 일찍이 네게 누차 말했다.”²³⁾고 말할 정도로 거듭 강조하였다.

19) 劉玉才 著, 《晚清書院與學術變遷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61쪽.

20) 曾國藩, <諭紀澤>(咸豐八年十月二十五日): “高郵王懷祖先生父子, 經學爲本朝之冠.”

21) 曾國藩, <諭紀澤>(咸豐八年十二月初三日): “爾翻而校對之, 則疑者明矣.”

22) 曾國藩, <諭紀澤>(咸豐八年十二月三十日): “余於本朝大儒, 自顧亭林之外, 最好高郵王氏之學.余自憾學問無成, 有愧王文肅公遠甚, 而望爾輩爲懷祖先生, 爲伯申氏, 則夢寐之際, 未嘗須臾忘也.本朝窮經者, 皆精小學, 大約不出段·王兩家之範圍耳.”

Ⅲ. 會通의 학술 지향

이렇듯 고증학에 대한 큰 감탄이, 그의 문학기론에서 어떻게 수용되었을 지가 궁금해진다. 그의 문학기론을 살펴볼 때, 고증학과의 관련성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논의로만 보더라도, 그가 동성고문뿐만 아니라 고증학에 대한 학술적 병행 또는 융합의 지향을 지녔을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내 자신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릇되게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자 하였다. 도의 깨달음은 깊고 넓어졌으며, 글쓰기는 다시 문제점이 없게 되었다. …… 고증학·성리학의 분쟁에 있어서, 편들어 서 소란을 피워선 안 되고, 여러 학자들의 도를 중시하고 문을 배척하는 논의에 대해서도 더욱이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²⁴⁾

“내 자신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릇되게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자 하였다.”는 그의 술회는 자신의 지향과 당시 학술 성취들을 폭넓게 수용하고자하는 노력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면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술의 회통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학술을 구축해나가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증학은 그의 의리와 경제에 뿌리를 둔 학술 체계 속으로 결합되었다.

주의할 점은, 공평한 듯 보이는 그의 지향과 논술에서, 여전히 ‘의리’나 ‘사장’을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읽힌다는 사실이다.

학문의 길은 한대부터 당대까지 풍기가 대체로 비슷하였고, 송대부터 명

23) 曾國藩, <諭紀澤>(咸豐九年四月二十一日): “本朝善讀古書者, 余最好高郵王氏父子, 曾爲爾屢言之矣.”

24) 曾國藩, <致刘蓉>: “僕竊不自揆, 謬欲兼取二者之長, 見道既深且博, 而爲文復臻于無累 ……于漢宋二家構訟之端, 皆不能左袒, 以附一哄; 于諸儒崇道貶文之說尤不敢雷同而苟隨.”

대까지 풍기가 대체로 비슷하였다. 본조에서도 하나의 풍기가 만들어졌는데, 그중 탁월한 이는 顧炎武·閻若璩·戴震·江永·錢大昕·秦蕙田·단옥재·왕념손 등이다. 풍기가 일면, 많은 학자들이 구름처럼 일어난다. 너는 독서에 뜻을 둘 뿐, 고증학의 이름을 따로 내걸 필요는 없으나, 여러 군자의 학문 방법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²⁵⁾

폭넓게 당시 학술성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중국번은 아들에게 고증학을 표방치는 말라고 가르쳤다. 회통을 주장하면서도 고증학을 내세우지는 말라는 것이다. 중국번의 궁극적 학술 지향이 묻어나오는 대목이다. 그는 청대 고증학자들에 대해 대단한 찬사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러 사고 속에서 여전히 중심 자리에 놓인 것은 ‘의리’와 ‘사장’의 두 가지 요건이었다.

그렇다면 ‘사장’에 대한 지향 한편으로, 그가 고증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유보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 당시 고증학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 여론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손정신이 지적한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그것이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증학은 사회 현실 문제의 해결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었다. ‘의리’를 바탕으로 한 경세지학이 새롭게 부상한 것은 당면 현실에 대한 학술적 반성을 지식인들이 제기하면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은 다른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곧 고증학은 ‘사장’의 측면에서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송대 이후로 문장에 능한 사람은 소학에 정통하지 않았다. 본조의 여러 유학자들 중 소학에 정통한 이들 역시 문장에 뛰어나지 않았다. 나는 일찍이 이것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인사가 다망하고, 오랫동안 종군하느라 뜻을

25) 曾國藩, <諭紀澤>(咸豐九年四月二十一日): “學問之途, 自漢至唐, 風氣略同; 自宋至明, 風氣略同; 國朝又自成一種風氣. 其尤著者, 不過顧·閻(百詩)·戴(東原)·江(慎修)·錢(辛楣)·秦(味經)·段(懋堂)·王(懷祖)數人, 而風會所扇, 群彥雲興. 爾有志讀書, 不必別標漢學之名目, 而不可不一窺數君子之門徑.”

이루지 못하여 지금은 한으로 맺혔다.²⁶⁾

중국변은 고증학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으나, 고증학자들의 문장이 가진 결합만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장이라는 것에 좀 더 치중하였던 사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찍부터 문장의 비결을 찾았다는 대목과 그 이후 꾸준히 詞章之學에 정진하였으나 공사가 다망하여 소기의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을 탄식하는 모습으로부터 그의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변은 애초 사장에 대한 학문적 열의를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고증학에 심취하였으나, 그 문장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글쓰기에 대한 갈증을 더욱 고조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르러, 그가 풀어야 할 숙제는 당연히 고증의 학술적 성취와 사장의 문장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일찍이 戴震·錢大昕·段玉裁·王念孫 등 본조의 대학자들이 그 소학 훈고는 실로 고금을 능가하여 곧장 漢唐으로 통할 만하지만, 문장은 옛사람의 심오함에 미치지 못하고, 뿌리에 이르러서 뿌리에만 멈추고, 그 하나만 알고 그 둘은 모르는 것에 대해,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난 적이 뜻을 품었으니, 戴震·錢大昕·段玉裁·王念孫의 훈고를 바탕으로 潘岳·張衡·左思·郭璞의 문장으로 펼쳐내고자 하였다(진나라 좌사·곽박은 소학에 조예가 깊었고, 문장도 양한을 육박하였으니, 반약·육기가 미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종군하느라 이러한 꿈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만약 너희들이 내 못 다한 뜻을 이뤄준다면, 이보다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²⁷⁾

26) 曾國藩, <諭紀澤>(同治元年五月十四日): “自宋以後, 能文章者不通小學; 國朝諸儒, 通小學者又不能文章. 余早歲窺此門徑, 因人事太繁, 又久曆戎行, 不克卒業, 至今用爲疚憾.”

27) 曾國藩, <諭紀澤>(同治二年三月初四日): “余嘗怪國朝大儒如戴東原·錢辛楣·段懋堂·王懷祖諸老, 其小學訓詁實能超越近古, 直通漢唐, 而文章不能追尋古人深處, 達於本而闕於本, 知其一而昧其二, 頗所不解. 私竊有志, 欲以戴·錢·段·王之訓詁, 發爲班·張·左·郭之文章(晉人左思·郭璞小學最深, 文章亦逼兩漢, 潘·陸不及也), 久事戎行, 斯願莫遂. 若爾曹能成我未竟之志, 則至樂莫大

“戴震·錢大昕·段玉裁·王念孫의 훈고를 바탕으로 潘岳·張衡·左思·郭璞의 문장으로 펼쳐내고자 하였다”는 말은 그의 학술적 지향이 사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고증학의 성과를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는 이 글에서도 고증학자들의 부족한 글쓰기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드러내었다. 이로 인해 그는 종군 시에도 끊임없이 훌륭한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못다 이룬 자신의 꿈을 자식들이 대신 실현해주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다시 이어졌다. 그렇다면, 중국번이 고증학을 인정하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데에는, 앞에서 살핀 호남 학술 전통과 함께, 경세지학의 등장에 따라 고증학이 시험대에 오른 현실과 더불어 글쓰기에서 치명적 결함을 지니고 있어서 결코 중국번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IV. ‘雄奇之文’을 쓰기 위하여

1. 語彙와 訓詁

그럼 이제 고증학의 성과들이 중국번의 문학 주장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앞에서 우리는 중국번이 ‘웅장하고 위대한 글’을 쓰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웅장하고 위대한 글’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諭紀澤>(咸豐十一年正月初四日)은 그 단서를 제공한다.

네가 글쓰기에서의 웅장하고 기이한 도를 물었더구나. 웅기는 기세가 가장 중요하고 문장 표현이 그 다음이며 어휘의 선택이 또 그 다음이란다. 하지만 어휘가 고아하지 않으나 문장이 고아하거나, 문장이 고아하지 않으

乎是.”

나 기세가 고아한 경우는 없다. 또한 어휘가 웅장하고 기이하지 않는데 문장이 웅장하고 기이할 수는 없고, 문장이 웅장하고 기이하지 않는데 기세가 웅장하고 기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문장의 웅기는 그 내적 요인은 기세에 있다. 그 외적 요인은 전적으로 문장 표현과 어휘 선택에 달렸다.²⁸⁾

그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꼽고 있다. 그것은 기세, 문장, 어휘이다. 이 요소들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중국번은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질 때에야, 문장이 웅장하고 위대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앞부분에서 “웅기는 기세가 가장 중요하고 문장 표현이 그 다음이며 어휘의 선택이 또 그 다음”이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지향하는 웅기의 글을 쓰기 위해 기세의 중요성을 가장 중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세라는 요소는 그가 한부를 주목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실제로 그는 글쓰기의 기세를 강화하는 데 한부를 주로 참조하였다.²⁹⁾ 그리고 한부가 그러한 기세를 갖게 된 바탕은, 중국번의 참조 방식에 비추어 추론한다면, 다채로운 표현 수법을 보유하고,³⁰⁾ 또한 대구의 수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³¹⁾ 이는 한부가 포진의 수법, 대구의 사용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라 하겠다.

하지만 그가 한부를 주목했던 보다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 위의 문장에서도 그러한 암시를 찾을 수 있다. 바로 그가 기세, 문장, 어휘 각

28) 曾國藩, <諭紀澤>(咸豐十一年正月初四日): “爾問文中雄奇之道. 雄奇以行氣爲上, 造句次之, 選字又次之. 然未有字不古雅而句能古雅, 句不古雅而氣能古雅者; 亦未有字不雄奇而句能雄奇, 句不雄奇而氣能雄奇者. 是文章之雄奇, 其精處在行氣, 其粗處全在造句選字也.”

29) 曾國藩, <日記>乙未(1835) 九月, 丁卯(1867) 正月, 丁卯 二月, 庚申(1860) 四月 等(拙稿, <桐城派에서 湘鄉派로- 曾國藩의 지향에 대한 고찰> 3.3 ‘駢文이라는 돌과구’ 재인용)

30) 曾國藩, <諭紀澤>(同治元年八月初四日): “行氣爲文章第一義, 卿·雲之跌宕, 昌黎之倔強, 尤爲行氣不易之法.”

31) 曾國藩, <諭紀澤>(咸豐十一年正月初四日): “爾所作<雪賦>, 詞意頗雅, 惟氣勢不暢, 對仗不工. 兩漢不尙對仗, 潘·陸則對矣, 江·鮑·徐·庾則工對矣. 爾宜從對仗上用工夫.”

요소를 어떻게 관계 지우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대목에서이다. 그는 앞에서 살핀 것처럼, 기세에 비해 문장, 어휘의 속성을 상대적으로 부차적으로 간주하는 듯하지만, “어휘가 고아하지 않으나 문장이 고아하거나, 문장이 고아하지 않으나 기세가 고아한 경우는 없다. 또한 어휘가 웅장하고 기이하지 않는데 문장이 웅장하고 기이할 수는 없고, 문장이 웅장하고 기이하지 않는데 기세가 웅장하고 기이할 수는 없다.”고 서술하여, 기세가 문장, 다시 어휘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문장, 어휘는 기세를 실현하는 데 근간이 되는 요소로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론적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증국번이 지향했던 응기의 글쓰기를 위한 출발점인 어휘와 한부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건대 漢魏 문인들의 두 가지 점을 가장 이루기가 힘들다. 첫째는 훈고가 정확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음조가 낭랑하다는 것이다. 《說文》의 훈고학은 중당 이후 후인들이 그다지 연마하지 않아서, 송 이후 경전 해설은 특히 옛 뜻에 어두웠다. 본조에 이르러 대학자들이 비로소 소학에 정통하였다. 단옥재·왕념손 두 학자는 끝내 옛사람의 글과 음조의 근본을 탐구하여, 《文選》중 古賦에 사용된 글자들이 전아하고 정당치 않은 것이 없음을 알아내었다. 네가 만약 단옥재·왕념손의 책을 숙독한다면, 눈앞에 자주 보이는 글자 중에 당송 문인들이 잘못 쓴 글자가 있으나, 《六經》만큼은 오류가 없고 또한 《文選》의 漢賦도 오류가 없음을 알게 된다.³²⁾

증국번은 한부가 가진 장점으로 ‘정확한 훈고’, ‘낭랑한 음조’를 꼽고 있

32) 曾國藩, <諭紀澤>(咸豐十年閏三月初四日): “爾所論看《文選》之法, 不爲無見. 吾觀漢魏文人, 有二端最不可及: 一曰訓詁精確, 二曰聲調鏗鏗. 《說文》訓詁之學, 自中唐以後人多不講, 宋以後說經尤不明故訓. 及至我朝巨儒, 始通小學, 段茂堂·王懷祖兩家, 遂精研乎古人文字聲音之本, 乃知《文選》中古賦所用之字, 無不典雅精當. 爾若能熟讀段·王兩家之書, 則知眼前常見之字, 見唐宋文人誤用者, 惟《六經》不誤, 《文選》中漢賦亦不誤也.”

고, 漢賦에는 전아하지 않거나 적절치 않은 어휘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그가 말하는 한위의 글쓰기는 한부에 초점이 놓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그가 보는 한부는 정확한 훈고에 입각하여 성조 상 적절하면서 전아한 어휘를 사용하여 창작된 글의 형식이었다.³³⁾

흥미로운 점은, 한부의 훈고가 정확하다는 그 근거가 당시 고증학으로부터 밝혀진다고 감탄하는 대목이다. 앞서 우리는 그가 당시 문호지견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학술들을 종합하려는 경향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당시 주요 고증학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 때 높이 평가했던 인물은 여러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단옥재와 왕념손으로 압축되었는데, 위의 예문 서술에서 보듯이, 그 두 사람은 바로 한부의 글쓰기가 가진 매력을 학술적으로 규명해주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성과에 기대어 한부라는 글쓰기가 다시 조명되었던 것이다. 중국변은 훈고의 측면에서 한부가 가진 글쓰기의 매력을 확인하였고, 그러한 신세계를 열어준 고증학자들에 대해 학술적인 측면에서 경모의 정을 보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훈고란 무엇인가? “《說文解字》가 ‘詰란 고대의 언어를 해석하는 것이다(詰, 訓故言也)’라고 해설하고 있듯이 옛날의 선인이 전하는 문헌의 자구 의미를 당대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⁴⁾

《說文·谷部》에는 “稭, 望山谷稭稭青也.”라는 구절이 있고, 《人部》에는 “[亻+卻], 微[亻+卻]受屈也.”라는 구절이 있다. 이 모두는 宋玉과 司馬相如의 賦를 근거삼은 것이나,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宋玉의 <高唐賦>에는 “仰視山顛, 肅何千千.”라는 구절이 있고, 司馬相如의 <子虛賦>에는 “微[希+几]受[言+出].”라는 구절이 있다. 허신이 본 것은 다만 異體字일 뿐이다.³⁵⁾

33) 이러한 관점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曾國藩, <日記>(庚申四月): “漢魏人作賦, 一貴訓詁正確.”

34) 오시마 쇼지 지음, 장원철 옮김, 《한자에 도전한 중국》, 산치림, 2003, 53쪽.

李詳은 청대 고증학의 큰 산인 양주학파의 적통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그의 책에서 전통적 훈고의 방법을 동원한 분석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 이 내용은 《설문》에 근거하여 ‘주석 양식’의 훈고를 진행하면서, 또한 부 작품에 담긴 글자들의 용례를 찾아 뜻을 확정하는 ‘동의어 사휘 양식’을 병용하고 있다.³⁵⁾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부는 《설문》등 字書와 함께 고증학자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어휘를 고증하는 데 중요한 글의 양식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청대에 들어와 한부는 고증학의 성과에 힘입어 훈고의 측면에서 중요한 근거자료로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대체로 <京都賦> · <田獵賦> · <江海賦> 등의 부 작품은 비록 소리 내어 읊조리기는 어렵지만, 造字 · 形成 · 訓詁學 측면은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없다.”³⁷⁾는 중국변의 언급은 그가 당시 한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

2. 文章表現과 古文

이제 문장표현의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글쓰기도 옛사람의 격식을 본떠야 한다. 《詩經》의 문장표현 방법 중에 어느 한 구도 출처가 없는 것이 없다. 《左傳》의 글은 대부분 기성의 문장이다. 揚雄은 한대 문장의 으뜸이나, 그 <太玄>은 《周易》을 본뜨고,

35) “《說文·谷部》: ‘稭, 望山谷稭稭青也.’ 《人部》: ‘[亻+卻], 徼[亻+卻]受屈也.’ 皆本宋玉·相如之賦爲說, 而不具其名. 宋玉<高唐賦>: ‘仰視山顛, 肅何千千.’ 司馬相如, <子虛賦>: ‘徼[希+几]受[言+出].’ 許君所見, 特異文耳.”(李詳 著, 《愧生叢錄》, 6쪽)

36) 훈고의 양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주석 양식’은 어떤 전적 가운데 나오는 문장에 의거한 해석을 말한다. 또한 ‘동의어 사휘 양식’이 있다. 이는 여러 전적에 보이는 동의어를 한데 모아서 해석을 한 것을 말한다.(《한자에 도전한 중국》, 53쪽)

37) 曾國藩, <覆鄧貞階書>: “蓋京都田獵江海諸賦, 雖難於成誦, 而造字形成訓詁之學, 則已不待他求.”

《法言》은 《論語》를 본뜨고, 《方言》은 《爾雅》를 본뜨고 <十二箴>은 <虞箴>을 본뜨고, <長楊賦>는 <難蜀父老>를 본뜨고, <解嘲>는 <客難>을, <甘泉賦>는 <大人賦>를, <劇秦美新>은 <封禪文>을, <諫不許單於朝書>는 《國策》의 “信陵君諫優韓”를 본떴으니, 본뜨지 않은 글이 없어 보인다. 韓愈·歐陽修·曾鞏·蘇軾 등 대가의 글도 모두 본떠서 단락을 이룬 부분이 있다. 너도 이후 문장이나 시부를 지을 때 마땅히 본떠야 할 것이며, 그 이후에 격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³⁸⁾

옛 저작의 문장표현은 다른 책들에게서 이미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앞선 작품에 등장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를 모범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그가 근거 있고 고아한 표현의 사용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확인시켜준다. 그는 앞서 본 다른 예문에서 “어휘가 고아하지 않으나 문장이 고아하거나, 문장이 고아하지 않으나 기세가 고아한 경우는 없다.”³⁹⁾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가 추구하는 기세에는 ‘古雅’라는 속성도 요구되었다. 어휘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상정되었지만, 문장표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부와 고문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양웅과 한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기도 하였다.

두 사람의 기세는 천부적인 것이나, 인위적 노력으로 말하자면, 한유는 문장 표현에 들인 공이 크고, 양웅은 어휘 선택에 들인 공이 크다.⁴⁰⁾

38) 曾國藩, <諭紀澤>(咸豐九年三月初三日): “作文亦宜摹仿古人間架. 《詩經》造句之法, 無一句無所本. 《左傳》之文, 多現成句調. 揚子雲爲漢代文宗, 而其《太玄》摹《易》, 《法言》摹《論語》, 《方言》摹《爾雅》, 《十二箴》摹《虞箴》, 《長楊賦》摹《難蜀父老》, 《解嘲》摹《客難》, 《甘泉賦》摹《大人賦》, 《劇秦美新》摹《封禪文》, 《諫不許單於朝書》摹《國策》“信陵君諫優韓”, 見於無篇不摹, 即韓·歐·曾·蘇諸巨公之文, 亦皆有所摹擬, 以成體段. 爾以後作文作詩賦, 均宜心有摹仿, 而後間架可立.”

39) 曾國藩, <諭紀澤>(咸豐十一年正月初四日): “未有字不古雅而句能古雅, 句不古雅而氣能古雅者.”

40) 曾國藩, <諭紀澤>(咸豐十一年正月初四日): “二公之行氣, 本之天授. 至於人事之

둘 다 기세라는 측면에서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으나, 양용은 어휘에 공을 들였고 상대적으로 한유는 문장 표현에 더 공을 들였다는 것이다. 증국번에게서 이 두 가지는 글쓰기에서 소홀히 다뤄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그는 두 갈래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나는 훈고·사장 두 갈래에 대해 매우 정성을 쏟았다. 내가 책을 읽을 때 훈고에 정통할 수 있다면 옛사람의 옛 뜻과 대의, 파생, 가차에 대해 점점 깨치게 되어, 후인들의 왜곡의 누습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장에 능통하다면 옛사람의 문장의 격식과 기세, 구성과 안배에 대해 점점 깨치게 되어, 후인들의 틀에 박힌 말투의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의 큰 소망이란다.⁴¹⁾

훈고는 옛 사람의 문장을 왜곡 없이 이해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사장은 문장의 구성과 기세 등을 익힐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훈고와 사장이 각각 가지는 장점을 그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⁴²⁾

3. 訓詁와 古文의 통합

두 갈래가 가지는 글쓰기의 장점을 분명히 확신했던 그로서는 두 가지 요건을 통합, 실현하는 것이 글쓰기의 지상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精能, 昌黎則造句之工夫居多, 子雲則選字之工夫居多.”

41) 曾國藩, <諭紀澤>(咸豐十年四月初四日): “吾於訓詁·詞章二端頗嘗盡心. 爾看書若能通訓詁, 則於古人之故訓大義, 引伸·假借, 漸漸開悟, 而後人承訛襲誤之習可改. 若能通詞章, 則於古人之文格文氣, 開合轉折, 漸漸開悟, 而後人硬腔滑調之習可改. 是余之所厚望也.”

42) 曾國藩, <諭紀澤>: “看漢書有兩種難處, 必先通於小學訓詁之書, 而後能識其假借奇字; 必先習於古文詞章之學, 而後能讀其奇字奧句.”

네가 이미 이러한 요령을 터득하였다면, 이후로는 정확한 훈고로 예스런 문장을 짓는 이 한 가지 뜻에 정진토록 하려무나. 班固·張衡·左思·郭璞 으로부터 위로 揚雄·司馬相如 그리고 《莊子》·《離騷》 그리고 《六經》 으로 어느 것 하나 서로 맥이 닿지 않는 것이 없으나, 아래로 潘岳·陸機 다시 任昉·沈約 다시 江淹·鮑照·徐陵·庾信으로 갈수록 어휘가 잡스러 워지고 기세는 약화되어, 훈고의 도가 쇠퇴하였다. 한유가 등장하여, 곧장 班固·張衡·揚雄·司馬相如를 거쳐 《六經》으로 도약하였는데, 그 훈고 또한 매우 정당하였다. 네가 <南海神廟碑>·<送鄭尚書序> 등의 글을 보면, 한유의 글이 사실상 한부에 근접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親張署文>·<平淮西碑> 등의 글을 보면, 한유의 글이 사실상 《詩經》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⁴³⁾

앞에서 논했던 두 가지 요건, 곧 정확한 훈고에서 비롯한 어휘의 사용 과 고대 전적에 근거한 예스런 표현을 통합하는 데 뜻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통합이라는 주된 논조를 유지하면서도, 그가 지적하는 내용 중에 특기할 만한 점은, 한부와 고문의 상관성을 지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곧 고문가 중에서 특히 한유의 글은 한부와 《시경》의 글에 근접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유의 글이 훈고의 측면에서 타당한 어휘를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긍정임과 동시에 고대 전적들의 표현에서 비롯한 전아한 문장의 구 사에 뛰어났다는 점에 대한 상찬이다. 중국변은 당대 고증학의 성과에 힘 입어 한부를 새롭게 발견하였고, 또한 여기에서 나아가 한유의 글이 가진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게 된 것이다. 한유의 글쓰기가 그 자신이 지향하는 글쓰기의 바람직한 롤 모델로서 자리 잡게 되었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

43) 曾國藩, <諭紀澤>(同治二年三月初四日): “爾既得此津筏, 以後便當專心一志, 以精確之訓詁, 作古茂之文章. 由班·張·左·郭·上而揚·馬, 而《莊》《騷》, 而《六經》, 靡不息息相通. 下而潘·陸, 而任·沈, 而江·鮑·徐·庾則詞愈雜, 氣愈薄, 而訓詁之道衰矣. 至韓昌黎出, 乃由班·張·揚·馬而上躋《六經》, 其訓詁亦甚精當. 爾試觀<南海神廟碑>·<送鄭尚書序>諸篇, 則知韓文實與漢賦相近; 又觀<親張署文>·<平淮西碑>諸篇, 則知韓文實與《詩經》相近.”

가능하다. 그는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한대 한부 작가를 중심으로 글 쓰기의 롤 모델을 확장, 확정지었다.

내 보기에 한대 사람들의 사장 중에 소학 훈고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예컨대 司馬相如·揚雄·班固는 소학 방면에 모두 전문 서적을 남겨, 《文選》에 세 사람의 글이 가장 많이 실려 있다. 나는 고문의 경우 이 세 사람과 사마천·한유 이렇게 다섯 사람을 본떠, 여기 다섯 사람의 글을 바탕으로 소학 훈고에 정통하여 한 글자도 허투루 쓰지 않는 데 뜻을 두었다.⁴⁴⁾

훈고라는 측면에서 뛰어난 문인 다섯 명을 꼽았고, 그 자신 역시 “여기 다섯 사람의 글을 바탕으로 소학 훈고에 정통하여 한 글자도 허투루 쓰지 않는 데 뜻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중국변의 글쓰기에 대한 재발견은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지향을 뚜렷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 당시 고문가들의 글쓰기에서 보이는 한계를 분명하게 의식하도록 자극하였다. 그것은 당시 고문가들에 대한 질타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는 “근래에 한유의 글을 익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양웅·사마상여·반고·張衡과 한 목소리임을 알지 못한다.”⁴⁵⁾고 일갈하였다. 한유의 글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당시 고문가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4) 曾國藩, <諭紀澤>(同治元年五月十四日): “余觀漢人詞章, 未有不精於小學訓詁者. 如相如·子雲·孟堅, 於小學皆專著一書, 《文選》於此三人之文著錄最多. 余於古文, 志在效法此三人並司馬遷·韓愈五家, 以此五家之文, 精於小學訓詁, 不妄下一字也.”

45) 曾國藩, <諭紀澤>(同治二年三月初四日): “近世學韓文, 皆不知其與揚·馬·班·張一鼻孔出氣.”

V. 曾國藩의 지향과 桐城派

지금까지 중국번의 학술 지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중국번은 애초 고증학에 대해 무관심하였고, 그 반면에 성리학과 고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는 호남의 학술 풍기와 그대로 일치하여, 호남이라는 성장 환경이 그의 학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 이후 경사로 올라와 여러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이전에 무관심했던 다른 학술, 특히 고증학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증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훈고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고증학을 다시 평가하기에 이른다. 더구나 고증학은 정확한 훈고에 바탕을 둔 한부의 또 다른 매력을 학술적으로 규명하였다. 하지만 고증학의 혁혁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애초 고문에 남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번은 고증학자들의 글쓰기에 적잖은 실망감을 느꼈고, 이는 고문에 대한 지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로 동시에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술적 흐름 속에서, 그는 고증학에 의해 규명된 학술적 성과들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부의 글쓰기를 적극적으로 고문 글쓰기에 수용하는 문학이론을 정립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중국번이 고증학과의 논의를 의식하면서 문학이론을 좀 더 완정한 형태로 정립하려고 시도하는 때 순간, 동성파의 문통을 이어가리라는 사명감 또한 강렬하게 그를 압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가 주로 고민했던 사안들은 바로 동성파에 대한 고증학과의 비판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글쓰기의 밀절미로 가장 중시한 훈고라는 부분은 동성파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또한 그래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은 부분이었다.

《潛研堂文集》<跋方望溪文>에서 “方苞는 고문을 자부하며, 오만방자하게 굴었다. 臨川의 李巨來만이 그를 무시하였다. 방포가 일찍이 자신이 지은 증조부의 묘지명을 이거래에게 보여주자, 이거래는 그저 한 줄 보고는

들려주었다. 방포가 성이 나서 ‘내 글이 한 번 볼 정도도 안 된단 말이오?’ 라고 말하였다. 이거래는 ‘그렇소.’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방포는 더욱 화가 나서, 설명을 구하였다. 이거래는 ‘지금 현 중에 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 다섯 곳으로, 桐鄉·桐柏·桐廬·桐梓이 있으니, 桐城만 있는 것이 아니오. 桐城을 줄여서 桐이라고 하면 훗날 누가 동성인줄 알겠소.’라고 말하였다. 요사이 《吳擘父集》을 봤는데, 역시 桐 또는 ‘吾桐’ 등의 표현을 누차 사용하고 있었다. 아마도 《潛研堂文集》을 보지 않은 듯하다.⁴⁶⁾

동성과의 초기 인물인 방포 당시부터 이미 훈고 측면에서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李詳의 글로,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揚州學派의 후대 인물이다. 양주는 안휘 지역과 더불어 고증학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고증학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입장을 고증학자들의 기본적 입장으로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동성 문장이 훈고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대대로 계승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시 동성과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吳汝綸에게 훈고의 허술함을 겨냥하여 유사하게 비판을 행하기도 하였다.⁴⁷⁾ 또한 그는 《愧生叢錄》에서도 오여륜의 고증을 문제 삼고 있다.⁴⁸⁾ 역시 양주학파의 일원인 劉師培도 “예로부터 사장은 소학에서 연원하였다. ……字學에 밝지 못하다면, 어떻게 글을 쓸 수 있겠는가!”⁴⁹⁾라고 하여 글 쓰기에서 출처 있는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장과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이렇듯 고증학 진영에서는 그들의 학술 방법론을 바탕으로 끊임없

46) “《潛研堂文集》<跋方望溪文>云: “望溪以古文自命, 意不可一世, 惟臨川李巨來輕之. 望溪嘗携所作曾祖墓銘示李, 才閱一行便還之. 望溪恚曰: ‘某文竟不足一寓目乎?’ 曰: ‘然.’ 望溪益恚, 請其說. 李曰: ‘今縣以桐名有五, 桐鄉·桐柏·桐廬·桐梓, 不獨桐城也. 省桐城而曰桐, 後世誰知爲桐城者.’” 近觀《吳擘父集》, 亦屢言桐及吾桐等字, 殆未見《潛研堂文集》.”(《愧生叢錄》, 73-74쪽)

47) “姬傳先生論文不可缺者三, 有考據在內, 擘父于考據特疏. ……今之工古文者, 往往如是, 不足爲怪也.”(《葯囊慵談》, 104-105쪽)

48) 李詳 著, 《愧生叢錄》, 112쪽.

49) 劉師培, <劉申叔先生遺書>: “自古詞章, 導源小學. ……字學不明, 奚能出言有章哉.”

이 동성과 글의 문제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동성파는 비조인 방포의 시대부터 문장의 기세가 부족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유대괴, 요내 등이 연이어 기세의 문제를 주목한 것은 그러한 사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노력 역시 문장 풍격상의 박약함을 만회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여륜은 “동성의 여러 선배들은 글의 기세와 격식이 정갈하여 세상이 떠받들었지만, 웅장하고 기이한 경계는 다소 부족하였다.”⁵⁰⁾고 적고 있다. 그가 말한 ‘기체 청결氣清體潔’, 곧 “글의 기세와 격식이 정갈한” 특징은 전, 중기 동성과 문장의 특징을 집약하고 있는 표현이다. 오여륜은 후기동성과 가운데 동성 출신의 문인인 바, 선배들에 대한 그의 비판적 의견은 당시 동성 문장에 대한 보편적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변이 ‘웅기지문’을 지향하면서 기세와 문장표현 그리고 어휘를 강조했던 것 역시 이런 사정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해석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오여륜은 “한유는 양웅, 사마천의 장점을 흡수하여, 글자마다 기이하였다. 구양수는 평이하게 변화시켰으나, 기이함이 평범한 가운데 담겨 있었다. 후학들은 그저 평이하게 쓸 줄만 알 뿐 기이하게 쓸 줄은 모르고, 재주가 박약하여 떨쳐 오를 수가 없었으니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었다. 중국변이 나와 바로잡고 한부의 기세를 운용함으로써, 문체를 일신하여 한 시대의 대가로 우뚝 섰다.”⁵¹⁾고 말하며, 중국변이 박약한 한계를 기세의 강화를 통해 전환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변은 당시 동성파의 문제점을 학술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보완하고자 절치부심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고증학을 전면적으로 긍정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동성의 문장을 보완하

50) 吳汝綸, <與姚仲實>: “桐城諸老, 氣清體潔, 海內所宗, 獨雄奇瑰瑋之境尚少。”

51) 吳汝綸, <與姚仲實>: “蓋韓公得揚, 馬之長, 字字造出奇崛. 歐陽公變為平易, 而奇崛乃在平易之中. 後儒但能平易, 不能奇崛, 則才氣薄弱, 不能復振, 此一失也. 曾文正公出而矯之, 以漢賦之氣運之, 而文體一變, 故卓然為一代大家.”(『吳汝綸全集』卷三, 51-52쪽)

는 방법으로 고증학과의 학문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였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중국번은 동성의 문장을 비판했던 고증학자들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그들의 비판을 정면 돌파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 중국번이 강남의 학적 네트워크를 자신의 세력으로 규합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성과를 전략적 파트너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감안한다면, 동성과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더욱 폭넓은 지식인층의 포섭까지도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듯하다. 위에서 본 것처럼, 그가 고증학자들에 대한 긍정, 그리고 그 성과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⁵²⁾

요컨대 중국번은 고증가의 비판의 칼끝이 동성과 고문을 겨냥하고 있음을 예의주시하고, 고증학의 학문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동성과 고문이 고래로 가진 문제점을 전면 보완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동성 고문은 중국번이라는 존재를 만나면서, 학술적으로 더욱 완정한 형태의 새로운 글쓰기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 參考文獻 >

- 曾國藩 著, 《曾國藩詩文集》, 上海古籍出版社, 2005.
 曾國藩 著, 《曾國藩治家全書》, 岳麓書社, 1997.
 全仲聯 主編, 涂小馬 等 選注評點, 《曾國藩文選》, 蘇州大學出版社, 2001.
 李詳 著, 《葯裏慵談》, 江蘇古籍出版社, 2000.
 李詳 著, 《愧生叢錄》, 江蘇古籍出版社, 2000.
 徐志嘯 編, 《歷代賦論輯要》, 復旦大學出版社, 1991.

52) 이러한 중국번의 지향은 당시 학술 판도에서 좀 더 폭넓게 재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직전 시기 완원이 적극적으로 고증학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학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고찰이 필요하므로, 훗날 연구 과제로 미루어놓는다.(郭明道, <阮元與清代學風>, 《江海學刊》, 2006.5, 175-176 참고)

- 劉玉才 著,《晚清書院與學術變遷研究》,北京大學出版社,2008.
- 다케다 마사야 저,《창힐의 향연》,도서출판 이산,2004.
- 오시마 쇼지 지음,《한자에 도진한 중국》,산치림,2003.
- 郭明道,《阮元與清代學風》,《江海學刊》,2006.5.
- 劉突,《清代中期的“文筆說”:產生,發展與演變》,《天津社會科學》,2006年第4期.
- 백광준,《晚清傳統文人與文言 - 以後期桐城派爲中心》,南京大 博士論文,中文系,2004.5.
- 백광준,《桐城派에서 湘鄉派로 - 曾國藩의 지향에 대한 고찰》,《中國文學》제61집,2009.11.

<中文提要>

众所周知,曾国藩参看和吸取汉赋的书写手法,以改善了桐城派的弊端,奠定了其复兴之基。不过,当时是离汉学兴旺的乾嘉年间不久,因此到了曾国藩那一时代,汉学仍然占据学术上的优势。要考虑如此情况,曾国藩为何接受桐城学派,是很难理解的。

为了找到其线索,首先,我们要考虑湖南学风。湖南历来被誉为“理学之邦”,宋学传统面面传承下来,四处洋溢着“有体有用之学”风气,汉学则不太受欢迎。加之,当时经世致用的学风兴起了,汉学逐渐被视为无用之学,这使得湖南人士对汉学予以激烈的批评。当地某人士甚至说,太平天国运动便是因汉学之弊而造成的。曾国藩即使不同意如此主张,整体来看,他的思考也很难摆脱湖南学术传统。这可能是他对桐城学术有好感的基本背景。还有,他在文论上重视“雄奇之文”,像钱基博所说的那样,这也有可能来自“犖有力”。

曾国藩也在湖南学风的熏陶之下起初对汉学没有任何兴趣,而成了京官,在跟一些学者交流的过程中才始有兴趣了。这表示他不仅是固守门户之

见, 反而广泛摄取当时学术成果, 以期重新构筑桐城学术。要注意的是, 他深为感叹汉学成果, 并且对一些汉学家深有钦佩之情, 是超乎我们所意料的程度。据考察, 这是因为段玉裁、王念孙等以训诂辨析出汉赋书写的长处, 即是每个词汇都非常正确地安排的。看来, 这引起他对汉学重新评价, 高度重视。如此一来, 他依靠汉学的成果, 看中汉赋书写, 并且注目书写上训诂的重要性了。在这一点上, 他对杨雄、韩愈颇有仰慕之情, 特别是, 据他理解, 韩愈虽是古文家, 而他的书写也接近于汉赋, 也运用颇为正确的词。同时, 他不满足于当时古文家的书写, 是因为气势不振, 仍失于空疏。结果, 他摸索吸取汉赋书写, 要给桐城的古文加以雄奇风格。

值得注意的是, 他救济当时古文书写之方是, 反而言之, 和当时汉学对桐城派的批评同调的。从中看出, 他所构筑的文论是从桐城派书写有限的认识出发, 参考汉学理论成就的。可谓, 曾国藩的文论在和汉学交互作用之下形成的。

주제어 : 曾国藩, 桐城派, 古文, 湖南, 训诂学, 雄奇, 汉赋, 会通

